“합성수지 가격결정 문제 많다”

국산 석유화학제품에 대해 국내 수요기업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특히, 소량 거래가 특징인 합성수지에 대한 플래스틱 가공기업들의 만족도는 얼마나 될까? 대단히 궁금한 사항일 것이다.

화학경제연구원(CMRI)이 국내 합성수지 생산기업들의 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범용 플래스틱(PE · PP 및 PVC) 가공기업들을 대상으로 인지도를 조사 · 분석한 결과, LG정유가 조사항목 12개 중 6개에서 1위를 차지하며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반면, 효성은 12개 항목 대부분에서 낮게 평가돼 수요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혹시나 가 역시나 로 확인되는 순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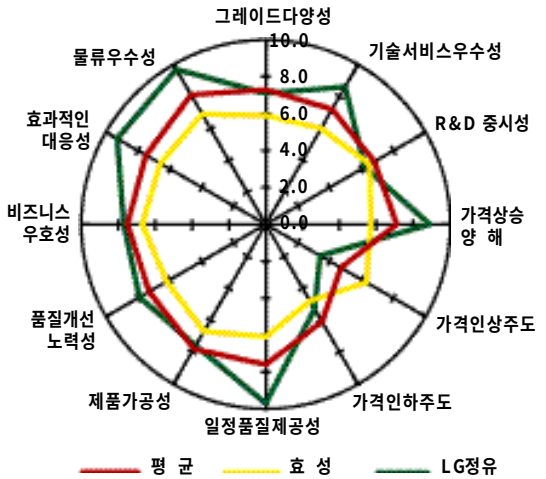
11개 메이커의 평균 만족도는 기술부문에서 그레이드 다양성 7.3점, 기술서비스 우수성 7.2점, R&D 중시성 6.8점으로 평이하게 나타났고, 가격부문에서는 가격상승 양해 7.1점, 가격인상 주도 4.7점, 가격인하 주도 6.1점으로 부정적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 품질부문에서는 일정품질 제공 7.6점, 제품가공성 7.8점, 품질개선 노력 7.3점으로 약간 양호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서비스부문에서는 비즈니스 우호성 7.5점, 효과적인 대응 7.5점, 물류 우수성 8.1점으로 상당히 양호했다.

즉, 기술 및 품질 부문에서는 중간수준의 평가를 받은 반면, 가격결정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었고, 서비스는 우호적인 평가가 많았음을 의미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산량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극심한 공급과잉 국면에서도 기술 및 품질을 우선하는 질적 경쟁은 하지 않고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서비스 경쟁에 치우쳐 있으며, 가격결정에 있어서는 여전히 메이커가 주도하는 후진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평균 만족도가 물류 우수성 8.1점에 가격인상 주도 4.7점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점에서 잘 나타나 있다.

기술부문은 중간 정도의 평가가 주류로 그레이드 다양성은 대한유화 및 폴리미래가 10점 만점에 7.7점으로 1위를 기록한 반면 효성은 5.9점으로 11위를, 기술서비스 우수성에서는 LG정유가 8.6점으로 1위에 오른 반면 역시 효성이 6.0점, 대림산업이 6.4점으로 하위를 기록했다. 또 R&D 중시성에서는 호남석유화학이 8.0점으로 1위에, LG정유가 6.2점으로 꼴찌를 차지했다. 메이커간의 만족도 편차가 그리 두드러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격부문에 있어서는 편차가 매우 커 가격인상 양해는 1위 LG정유(8.9점)와 11위 효성(5.7점)의 편차가 3.2점에 달했고, 가격인상 주도도 효성 6.3점에 LG정유 3.4점으로 편차가 2.9점, 가격인하 주도는 대한유화 및 현대석유화학 7.0점에 효성 4.8점으로 차이가 2.2점에 달했다. 편차가 크다는 것도 문제이려니와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일 것이다.

합성수지 생산기업의 경쟁력 비교



품질부문에서는 일정품질 제공성에서 LG정유가 9.7점으로 1위, 효성이 6.1점으로 11위, 제품가공성은 대한유화 8.4점에 효성 6.7점, 품질개선 노력성은 LG정유 7.9점에 효성 6.2점으로 나타났고, 서비스부문에서는 비즈니스 우호성에서 한화석유화학 8.4점에 대림산업 및 효성 6.7점, 효과적인 대응성에서 LG정유 9.3점에 역시 효성 6.9점, 물류 우수성도 LG정유 9.7점에 효성 6.2점으로 비슷했다. 품질 및 서비스 부문에서도 LG정유와 효성 및 대림산업과의 차이가 상당히 벌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나 중간그룹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인간관계 및 특수관계에 따라 거래관계가 형성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기술 및 품질에 대한 만족도가 중간 위치에 있다는 것은 수출에서도 가격요인 외에는

경쟁력 요소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시급히 개선돼야 할 요인이다.

가격부문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동시다발적으로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화학저널 2003/3/24>